이기는 삶

주인의식

직장에서 수시로 지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조금이라도 일찍 출근하고 있는가, 아니면 겨우 출근시간을 맞추거나 지각을 밥 먹듯이 하지는 않는가? 만약 내가 직장의 상사라면 인원 감축을 할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정리 대상에 올리겠는가? 당연히 후자다. 전자(前者)이면서 일을 못하는 사람 없고 후자(後者)이면서 불평불만(不平不滿) 없는 사람이 드물다. 후자의 경우 자기는 항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기저기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다닌다.

어느 직장에서나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 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의식도 없다. 그저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한다. 그런 모습은 상사나 사장의 눈에 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책임 있는 일을 맡길 것이고 승진도 빠를 것이다. 무엇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어 스스로가 자기 일에 만족하여 직장생활이 행복해진다.

발상만 바꾸면 돼

반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 일이 지루해지고 당연히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칭찬을 들을 일도 없고 일을 해도 재미가 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일수록 직장의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느니, 처우 개선을 해주지 않는다느니,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느니 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만약 그런 사람이 사표를 제출한다면 직장에서는 그 사표를 바로 접수해 버릴 것이다. 사표를 쓰더라도 상사나 사장이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출근시간에 딱 맞추어 출근하지 않는다. 항상 일찍 출근하여 일할 준비를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사실 큰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다.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발상을 바꾸고 나면 업무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 남의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은 회피하고 싶다. 그러나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외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종업원이라는 생각으로는 몇 년을 일해도 전혀 발전이 없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다. 이것은 내 일' 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은 하루하루 자신의 능력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주인 주(主) 자는 등잔이 접시 위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으로 일정 기간 머물러 책임을 지는 자라는 뜻이다. 종업원(從業員)의 좇을 종(從)은 사람이 사람의 뒤를 따르는 형상을 나타내며 따르다, 복종하다, 남의 말을 듣고 남을 쫓아간다는 뜻이다. '한 사람 주인의 눈이 열 사람 종의 눈보다 밝다' 는 옛말이 있다. 주인과 종은 소유가 아닌 '사명감, 주인의식, 책임감' 등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way to proceed step by step
단계별로 전진하는 길

이 길은 자신 스스로와 싸우는 길이요 마음을 죽이는 길이다.
▶ This way is the way of fighting oneself and the way of mental suicide.

그러나 마음을 죽인다는 것은 순간에 끝나는 신체적 자살같이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다.
▶ As for mental suicide, however, it is not so easy as physical suicide, which ends in a minute.

나라는 의식은 한 번의 칼의 휘두름으로 완전히 제거될 수 없기 때문이다.
▶ Because Self-Awareness cannot be removed totally with a sweep of the sword.

그래서 시작부터 높은 단계를 꿈꾸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So, it is nonsense to dream of the higher steps from the beginning.

그것은 무모한 돌진과 같고 하늘에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것과 같다.
▶ That is like a reckless dash, trying to build a house in the sky.

그러므로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전진해야만 한다.
▶ Therefore, everyone must proceed step by step, with endurance.

물이 끓는 점에 느리게 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궁극적인 큰 변화에 단계별로 도달해야만 한다.
▶ As water slowly reaches the boiling point, everyone must come step by step to the ultimate revolution of self.

이제 이 길은 이긴자 구세주가 스스로 만들었던 과정이다.
▶ And now, this way is progress that the Victor Christ has made by himself.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긴자 구세주는 마귀를 이기고 이긴자가 되었다.
▶ Though this progress, he has overcome Satan and became the Victor Christ.

우리도 이긴자 구세주님을 따라 천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도와야만 한다.
▶ We must follow him and help to develop the heaven again.*

by Alice

행복한 삶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마음의 위대한 힘 바로 알기

사람의 주인은 마음과 정신이다

잘 알다시피 몸은 마음과 정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인다. 마음을 서울에 가야겠다고 품으면 반드시 서울로 향하여 가게 되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평범하지만 아주 비상한 마음의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 있음과 또, 그것을 끄집어내어 다루는 원리와 작용법칙이 엄연히 있음을 말하려고 한다. 이는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의 수고(手苦)와 공로(功勞)로 어느 정도 그 비결이 구비전승(口碑傳乘)되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라는 말은 다 이런 마음의 잠재능력의 원리와 법칙에서 근거한다. 마음의 놀라운 초능력, 불가사의한 힘의 발견이 바로 인생의 간절한 염원인 '성공' '행복' '불로장생' 의 성취와도 일맥상통한다.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과 성공자는 하나같이 이러한 마음의 신비한 힘을 나름대로 터득한 사람으로 그 발자취가 후대에 길이 남는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그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씨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소소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것을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어떠한 원리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물론, 보통사람일지라도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은 바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의 위대한 산물"일 것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했다. 뭐든지 뜻을 품고 목표를 삼으면, 길은 집중력 노력 인내력 불굴의 투지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영원불변의 진리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농사에 뜻이 있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짓는 전문가가 되고, 사업으로 성공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잘 하는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사람이 하고자 집중하면 뭐든지 기필코 목표 달성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의 대상이 되는 불로장수의 삶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람이 어디에다 그 목표와 가치, 의미를 더 두고 집중하느냐 하는 구분과 차이만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긍정적인 자세로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간단하게 짚어본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놀라운 능력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우리의 꿈과 희망을 어디에다 두고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먼저 대두된다.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결국, 인생의 본질적 문제는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세상에서도 멋진 고층 건물을 지으려 해도 완벽한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 우리네 인생을 행복하게 수립하는 데도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 놓은 '인간 기본욕구 5단계' 가 있어 인용한다.

오랫동안 연구한 미국 인본주의 운동가이자 심리학자인 에브라함 메슬로우의 인생 행복 설계도로서 필히 알아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는 수정 보완을 거쳐 좀더 심층화하고 완벽을 기한 7단계 이론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숙지해 보자.

완전한 만족(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첫째는, 생리적 욕구가 해소되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생리적 욕구로는 식욕, 수면욕, 성욕 등이 있다. 이는 인간의 가장 낮은 행복의 욕구이며, 흔히 동물적인 만족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다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이고, 안전이나 애정, 소속감, 나아가 자기계발이나 자아충족 자아완성 등을 감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당장에 따뜻한 밥과 거주지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만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행복의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의 행복, 완전한 행복(부족함 · 불만이 없는 상태)으로의 진입이 어렵다. 그러므로 질적으로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생리적 욕구의 해결에 전전긍긍하느라 그 이상의 차원 높은 삶을 추구할 겨를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안주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자족해하는 저질의 사람 말이다. 저단계의 삶은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시간과 생명의 가치를 개인의 먹고 사는 일에 바치는 것이 좀팽이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미개한 나라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간의 삶의 추구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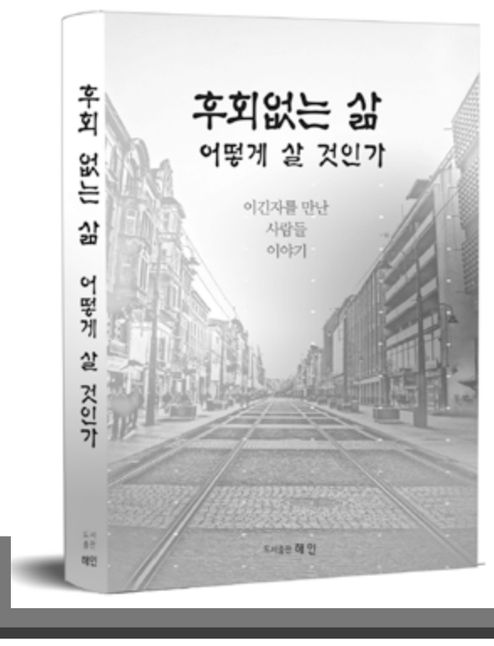
마땅히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개구리가 우물에서 빠져 나오듯,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좁은 영역에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타파하고 더 넓은 세계로의 차원 도약을 감행해야 발전하는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김주호 기자

영생의 도를 닦는 사람들 이야기

도서출판 해인



'삶' 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전국서점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하고 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